

청소년소설에 나타난 소녀들의 자살 심리 -소녀들의 다양한 인간관계의 불화에서 오는 충동적 특성을 중심으로- Girls' Suicide Mentality in Adolescent Novels

-Focusing on Girls' Impulsive Characteristics from Their Various Human Relationship Discrepancies-

음영철

삼육대학교 교양학부

Yeong-Cheol Eum(sangoma@syu.ac.kr)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소설을 중심으로 소녀들의 자살 심리를 연구하였다. 논의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려령 작가의 『우아한 거짓말』(2009)은 화연이란 소녀가 자신이 집단 따돌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 천지라는 아이를 따돌리는 소설이다. 화연은 ‘관계적 공격’을 통해 또래 소녀들에게 천지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심어준다. 이로 인해 천지는 자기를 투명 인간으로 인식하고 자신이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게 되자 도피 심리를 보여준다. 둘째, 이옥수의 『킬리만자로에서, 안녕』(2008)이란 작품에서 윤성민의 여자 친구 수희는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엄마의 죽음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해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간다. 새엄마의 성적 압박으로 인해 자신의 애완동물을 돌볼 수 없게 되자 수희는 우울증에 시달리고 에너지가 고갈된다. 부모의 강압과 언어폭력도 소녀들에게는 자기차별심리가 작동하여 자살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셋째, 박채란의 『목요일, 사이프러스에서』(2009)란 작품에는 소녀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협상도구로 자살을 이용하는 심리가 나타난다. 청소년들은 사소한 요구가 좌절되어도 자존감을 찾기 위한 보복심리가 작용하여 자살을 시도한다.

■ 중심어 : | 청소년소설 | 자살 심리 | 우아한 거짓말 | 킬리만자로에서, 안녕 | 목요일, 사이프러스에서 |

Abstract

In this thesis, girls' suicidal mentality which appears in some adolescent novels was sought. We can conclude like these: first, in the novel, *Elegant Lies* written by Ryeo-ryung Kim, the girl named Wha-yun leaves out Cheon-ji not to be left out alone by her companies. Wha-yun has succeeded in giving an ugly impression of Cheon-ji to the peer girls around her by exercising relational aggression. As a result, Cheon-ji sees herself as a meaningless being and after recognizing that she can't change the situation, she shows psychology of escape. Second, in the novel, *Goodbye, from Kilimanjaro* written by Ok-soo Lee, Sung-min Yoon's girlfriend Soo-hee born and grown in Africa lives with trauma from her mother's death. As her step-mother suppressed her not to keep in touch with the pet animals, Soo-hee got depressed and out of energy. Parental oppression and verbal violence can let the girl activates self-punishment and lead to suicide. Third, in the novel, *Thursday, in Cyprus* written by Chae-ran Park, girls could use suicide as a negotiation agenda. Adolescents could commit suicide even if their trivial requests are rejected. In these situations above we can read anticipation of compensation, retaliation and self-punishment mentality.

■ keyword : | Adolescent Novel | Suicidal Mentality | *Elegant Lies* | *Goodbye, from Kilimanjaro* | *Thursday in Cyprus* |

1. 서론

청소년문학이 청소년들의 삶의 문제를 제대로 담아 야 한다면, 청소년의 자살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한국 청소년들의 사망원인으로 자살이 압도적이라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흘에 한 명 꼴로 한국의 청소년은 생을 마감한다. '2010년 1월부터 2014년 9월 현재 초·중·고 자살 현황'을 보면, 이 기간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청소년은 630명이다. 2.74일에 한 명꼴로 청소년은 자살을 하는 것이다[1].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볼 때 청소년 자살 문제는 이제 가정과 학교, 사회와 국가적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회적 문제라 할 것이다. 문학과 이 시대적 요구를 비켜갈 수 없다.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원인은 신체적 요인보다는 정신적인 요인이 더 크다. 정신장애로 인한 우울증, 집단 따돌림, 성적 및 입시 스트레스, 한부모 가족으로 인한 가족 간의 불화, 언론 및 텔레비전 등에 나타나는 자살 미화 등은 그러한 예이다. 이처럼 청소년 자살의 원인은 무척 다양하지만 크게는 소외와 폭력으로 묶여질 수 있다. 게다가 자아의식이 뚜렷해지는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자살은 급증한다. 청소년의 자아의식이 강해지면서 가정과 학교 또래집단 사이의 갈등 상황이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 자살의 특성은 충동적이며 분명한 동기가 내재돼 있다. 예컨대 모방 자살이 전자라면 욕구의 좌절로 인한 분노는 후자에 해당한다.

청소년소설은 청소년을 주요 독자로 삼아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 과정을 주로 다룬 소설을 일컫는 말이다. 청소년문학의 의미 또한 넓게는 '청소년에게 주어지는 문학'에서부터 시작하여 좁게는 '청소년독자'에 국한된 주제와 서술방식을 뜻한다[2]. 과거의 청소년소설은 청소년의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입사소설의 형식과 내용을 보여준 양식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의 작품들은 한국 청소년의 의식수준을 보여주기 위해 새로운 소재와 주제의식, 다양한 창작기법을 시도하고 있다. 예컨대 청소년 문학에서 금기시되어 왔던 성과 관련된 문제, 원조교제, 폭력, 자살 등을 다룸으로써 점차로 계몽적 담론을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청소년

문학 작품이 풍성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3]. 2000년 이후에 나타난 청소년소설 중에서 '자살'을 다룬 소설로는 이경혜의 『어느 날 내가 죽었습니다』(2004), 임태희의 『취를 잡자』(2007), 이옥수의 『킬리만자로에서, 안녕』(2008), 배봉기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2009), 허예슬의 『고슴도치 아이들』(2009), 김려령의 『우아한 거짓말』(2009), 박채란의 『목요일, 사이프러스에서』(2009), 한정영의 『비보이 스캔들』(2012)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작품과 관련된 주요 논문으로는 자살의 문제를 주로 성장소설의 관점에서 연구한 성영미의 논문 「청소년소설에 나타난 성장의 양상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논문은 이옥수의 『킬리만자로에서, 안녕』을 중심으로 상처 치유를 통한 현실 극복의 관점을 보여준다[4]. 오세란의 「한국 청소년소설 연구」는 청소년소설의 정체성을 규명하기 위해 2000년대 이후 나타난 청소년소설들을 '지금, 여기'의 당대성 문제로 천착하여, 청소년의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었는지를 연구하였다[5]. 박경희의 「청소년소설에 나타난 청소년문화양상 연구」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와 『우아한 거짓말』에 나타난 집단 따돌림이 존재감의 상실에 따른 자살로 이어지는 과정임을 보여주었다[6].

본 논문은 자살사고나 자살행동을 시도하는 소녀들이 작중인물로 나오는 김려령의 『우아한 거짓말』(2009), 이옥수의 『킬리만자로에서, 안녕』(2008), 박채란의 『목요일, 사이프러스에서』(2009)를 중심으로 소녀들의 자살심리를 연구하고자 한다. 사회학적 관점과 달리 소녀들의 자살을 다룬 청소년소설에는 이들 청소년들이 일상적 공간에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자존감을 상실하게 되는 여러 상황들과 인물이 허구적으로 제시된다. 특히 본 논문에서 작중인물인 소녀들의 경우 청소년의 일상에 내재된 자살 심리의 심각성을 잘 드러낸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들 청소년소설에 나타난 소녀들의 자살 원인이 가정과 학교라는 일상 공간에서 다양한 인간관계의 불화에 기인함에 주목하여 이들 소녀들의 자살 심리인 도피심리, 자기차별심리, 보복심리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지금까지 청소년소설 관련 논문들에 나타난 '자살' 연구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몇몇 작품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의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자살 심리'를 다룬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소설에 나타난 소녀들의 자살 심리 양상을 주로 심리학적 관점에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김려령 작가의 『우아한 거짓말』을 중심으로 또래집단에서 발생하는 집단 따돌림과 자살과의 연관성을 살필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10대 소녀들의 공격성을 분석하고 '집단 따돌림'의 본질과 대책을 강구한 레이첼 시먼스(Rachel Simmons)와 십대들의 자살 예방법을 연구한 리처드 E. 넬슨과 주디스 C. 갈라스(Richard E. Nelson·Judith C. Galas)의 이론을 인용하여 집단 따돌림에 따른 자살의 기저에 도피심리가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둘째, 이옥수의 『킬리만자로에서, 안녕』이란 작품을 다루면서 가정폭력에 따른 소녀들의 자살 심리가 어떤 심리적 원인으로 발생하고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정폭력에 따른 트라우마 연구자로 심리학의 권위자인 주디스 허먼(Judith Herman)과 청소년 자살을 실질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 제임스 M 퍼피(James M. Murphy),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프로이트의 이론을 청소년소설을 분석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이는 폭력에 시달리다 자살에 이르는 소녀들의 자기처벌심리를 드러내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셋째, 박채란의 『목요일, 사이프러스에서』란 작품을 연구하면서 소녀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살을 협상 도구로 이용하는 심리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때 나타나는 소녀들의 보복심리는 앞서 거론한 연구자들의 다양한 논의에 힘입어 논지를 전개할 것이다.

III. 집단 따돌림과 자살 : 『우아한 거짓말』

김려령 작가의 『우아한 거짓말』은 주인공 천지의

자살을 다루고 있다. 천지는 평범하고 소심한 열네 살 소녀이다. 그녀는 자살하였으며, 죽기 전에 자신을 미워한 또래 소녀들과 자신을 사랑했던 가족들에게 유서를 남긴다. 언니 만지는 동생 천지가 자살한 이유를 알기 위해 주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천지와 가까웠던 화연이 가해자였음을 알게 된다. 또한 천지의 편지에 나오는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천지의 주변인물들 또한 천지의 자살에 공동 책임이 있음을 깨닫는다. 이 장에서는 집단 따돌림의 피해 경험이 어떻게 자살 심리로 이어지는지를 천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소녀들은 또래집단에서 고립될 때 삶의 위험을 느낀다. 천지는 전학 온 아이이기 때문에 소녀들의 무리에 소속되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다. 그런 천지에게 살갑게 다가선 소녀는 화연이다. 문제는 화연이 또래의 소녀들로부터 자신이 소외되지 않기 위해 희생자인 천지에게 '관계적 공격'을 행하는 데 있다. 레이첼 시먼스에 따르면, '관계적 공격'은 "관계나 수용, 우정, 소속감의 느낌을 훼손(혹은 훼손하겠다고 위협)하여 타인을 해치는 것이다[7]." 여기에는 조종을 포함하여 관계를 무기로 사용하는 행위는 무엇이든 포함된다.

화연이는 내게 처음 말을 건 아이입니다. 전학 온 아이에 대한 호기심으로 다가왔겠지요. 싫지 않았습니니다. 친절했고 살가웠으니까요. 그런데 화연이와 놀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마 내가 거의 술래였지 싶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내가 지면 진 사람이, 이기면 이긴 사람이 술래라며 화연이가 게임 방식을 바꿨습니다. 아이들마저 그 방식에 동참했습니다. 손 끝에 화연이의 등뼈가 느껴질 만큼 쳐내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8].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화연이는 가위바위보를 통해 천지에게 관계적 공격을 가한다. 천지는 이 게임을 이길 수가 없는 영원한 술래가 되어야 한다. 화연이는 자신의 지배욕을 과시하기 위해 가위바위보를 제안하고, 천지는 자신이 또래의 소녀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 순응해야 한다. 화연이는 천지에게 위협을 가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우정이라 생각한다. 이로 볼 때, 소녀들이 경험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원망과 분노는 대체로 가까운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남을

알 수 있다.

가해자 화연이의 관계적 공격은 천지가 한부모 가족에서 자란 아이라는 약점을 교묘히 이용하는 데서도 드러난다. 화연이는 또래의 소녀들에게 천지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린다. 화연이가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이유는 재미 때문이다. 반 아이들이 이미 괴롭히고 있는 왕따는 재미가 없지만, 티 나지 않고 교묘하게 새로 왕따를 만들고 썩 빠지는 일은 더 흥미롭고 재미가 있기 때문이다. 화연이는 천지를 이용하여 자신의 우월한 위치를 반 아이들에게 알림으로써 자신이 또래집단으로부터 소외되거나 왕따를 당하지 않으려고 한다. 자살 가해자의 심리는 신체적 폭력이 아닌 언어폭력의 형식을 띠고 새로운 희생자를 궁지로 몰아넣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한 마디로 “또래집단으로부터 누군가를 배제시키기 위한 또래들 간의 관계를 조작하는 것[9]”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천지의 또 다른 친구 미라는 화연의 관계적 공격으로부터 천지를 보호하고자 했지만,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인물이다. 천지는 비극적인 섹체를 아주 질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프라이(N. Frye)가 말한 속죄양(pharmakos)의 인물유형에 해당한다면 화연이는 프로프(V. Propp)가 말한 악한(the villain)으로 천지를 괴롭히는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미라는 천지와 화연의 불화관계를 알면서도 천지에게 도움주기를 회피하는 조력자(the helper) 회피형에 해당한다[10]. 미라가 중재자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도 한부모 가족이면서도 폭력적인 아빠가 천지엄마를 새엄마로 맞아들이고 싶어 하는 걸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라는 화연과 달리 천지에게 무관심하다.

레이첼 시몬스는 소녀들이 공격하고 싶은 마음과 그럴 수 없는 마음 사이에서 어쩔 수 없는 줄다리기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11]. 소녀들은 어떤 때는 분노 때문에 착한 본성이 부서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분노가 표면 아래에서 출렁이며 친구들에게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이다. 미라는 화연과 갈등을 겪으면서도 소극적으로 반항하는 천지에게 화연이는 ‘누가 죽어야 정신 차릴 애’라고 말한다. 미라의 이 말에 자극을 받은 천지는 화연을 공격하는 것이 계속 실패로 돌아가자 끝

내 줄다리를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인 자살을 실행한다. 천지는 친구 관계에서 오는 다양한 따돌림으로부터 자신을 조언해줄 진정한 친구가 부재했던 것이다.

리처드 E. 넬슨과 주디스 C. 갈라스에 따르면 자기 개념이란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를 말한다[12].”라고 했다. 따라서 이들의 이론에 따르면 환경(Environment)과 사람과의 상호작용(Interaction with Others)은 자기 개념(Self-Concept) 그리고 스트레스 수준(Stress Level)과 같다. 이를 공식화하면 $E+IO = SC \& SL$ 이 된다. 이들의 이론을 작중인물에 적용하면, 천지는 학교 환경과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이 화연으로 인해 방해받았기 때문에 자기 개념은 낮아지고 스트레스는 증가한다. 따라서 천지는 존재감이 없는 ‘투명인간’으로 자신을 인식한다. 물론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집단 따돌림이 지속적으로 희생자에게 가해진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소녀들은 친구관계에 있어서 스트레스 상황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느낄 때, 다른 세상으로의 탈출, 즉 도피심리에 빠져드는 것이다.

화연이와 같은 반 친구들은 자신들이 소외되지 않기 위해 소극적이며 내성적인 천지를 집단으로 따돌린다. 천지가 다니는 학교는 집단따돌림에 만연된 상태이다. 이 작품이 일반적인 소녀들의 자살이 아닌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2000년대 한국 사회의 청소년 자살의 심각성을 형상화하는데 성공한 것은 화연이와 같은 가해자도 언제든지 또래집단에 의해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데 있다. 또한 천지와 같은 평범한 소녀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과거와 같은 학업의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 아닌 집단따돌림에 따른 과도한 스트레스나 고통에 시달린 나머지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소녀들의 도피심리를 잘 보여주었다는 데 있다.

한국 소녀들에게 자살을 불러오는 도피 심리는 김려령의 『우아한 거짓말』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집단따돌림에 따른 관계적 공격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 이는 과거의 소녀들이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자살을 한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한국의 소녀들은 집단 따돌림 같은 감내하기 힘든 스트레스나 고통을 경험하면 탈출하고 싶은 강한 욕망에 시달린다. 이 작품의 비극적 인

물인 천지는 우정과 친교를 나눌 수 있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관계적 공격에 해당하는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가 끝내 삶의 줄다리를 놓아버린 것이다.

IV. 가정폭력과 자살 : 『킬리만자로에서, 안녕』

이옥수의 『킬리만자로에서, 안녕』은 여로형 소설로 한부모 가족의 주인공 윤성민이 자신의 여자 친구 진수희의 유언을 실현시키기 위해 킬리만자로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회상하는 내용에 이야기의 초점을 맞춘 청소년소설이다. 이 소설은 케냐 여행에서 만난 다양한 인간군상과 어울림으로써 주인공 성민이 엄마와의 갈등을 성찰하고, 자신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잘 드러난 작품이기도 하다. 이 소설의 서브플롯은 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해 자살한 수희의 이야기로 되어 있다. 이 장에서는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수희를 통해 소녀들의 자살 원인인 자기차별심리를 분석하고자 한다.

주인공 성민은 비행기 추락 사고를 당해 아버지를 잃고 엄마와 누나와 함께 살아간다. 성민은 매년 어학연수하다가 고액 학원을 다니는 강남의 부유층 자식이다. 엄마의 지시에 따라 살아가는 성민은 수희를 만나게 되면서 사랑의 감정을 갖는다. 또한 성민의 여자 친구 수희는 아버지가 외교관인 까닭에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소녀로, 일찍 엄마를 잃고 재혼한 아빠와 새엄마와 함께 산다. 수희는 온갖 야생동물과 함께 살면서 모성이 부재한 삶을 견딘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사람은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었다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깊은 슬픔과 우울증이 나온다고 하였다[13]. 슬픔이 보통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에 대한 반응이고, 이러한 상실감이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슬픔이 삶에 대한 정상적인 태도에서 크게 벗어나는 상황을 만들기도 하지만, 결코 그것이 어떤 병리적인 상황도 아니며, 또 치료를 요하는 것도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면 그 상황이 극복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설에 나타난 수희는 어린 시절에 경험한 모성의 상실에 따른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수희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죽음에 따른 심각한 외상을 경험한 바 있다. 주디스 허먼이 지적했듯이 이러한 “외상 사건은 언어화된 이야기가 아닌 증상”[14]으로 떠오르는데 수희에게는 실어증으로 나타난다. 수희의 아버지는 외교관의 일을 수행하는 일로 인해 수희의 상실감을 달래주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수희는 집에서 일하는 마리오가 가져온 고양이에게 집착한다. 수희는 고양이에게 정이 들고 고양이와 말을 하다가 다시 말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실어증과 같은 해리 현상을 동물과 교감하면서 치유한 것이다. 그러나 수희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은 이때의 치유가 일시적인 것이었으며 언제든지 억압된 것은 회귀하여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수희는 엄마의 부재에 따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과도하게 애완동물이나 곤충을 기른다. 뿐만 아니라 수희는 애완동물에 고착되어 어린 아이로의 퇴행을 보여준다. 수희에게 있어 애완동물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프로이트가 말한 외상에 따른 집착으로, 수희는 엄마의 상실감에 따른 삶의 무의미를 애완동물로 대체함으로써 리비도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수희가 서울에 오게 되고 고등학교 2학년에 다니면서 새엄마의 입시 열망과 수희의 부진한 성적은 모녀간의 갈등을 불러온다. 급기야 수희 새엄마의 성적 압박에도 수희의 성적이 오르지 않자 이들 부모는 수희에게서 동물들을 빼앗는 극단적 행동을 한 것이다.

자살을 시도하는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보다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분리되어 있고 역기능적이며 가족과의 갈등이 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15]. 수희의 학업 성적 부진에 따른 동물 빼앗기는 수희로 하여금 자신의 애착 대상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자괴감과 절망을 낳게 한다. 이러한 절망과 대면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자살 위험이 증가한다. 게다가 유일한 혈육인 아버지마저 자신을 감싸주지 않고 폭력을 휘두르게 되면서 수희는 아버지의 폭력적인 모습에 절망하고 자기 파괴적 행동을 결심한다. 수희의 경우는 부모의 폭력에 따른 자기 처벌로 자살을 선택한 것이다. 신복기·이정진의 지적처럼

럼 “청소년기 학대는 반항이나 회피의 양상으로 나타나는데”[16] 수회는 가솔이 아닌 자살을 선택한 것이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고, 성적에 대한 언어폭력이 갈수록 심해지자 수회는 자신이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우울증이 재발한다. 우울증은 원인이 분명치 않은 슬픈 감정이 지속되면서 소화 불량, 수면 장애 등의 신체적 증상과 함께 자기 비하, 죄책감 등이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17]. 급기야 수회는 우울증으로 인해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는다. 이는 부모의 처벌이나 꾸중 등에 대한 공포심에 따른 것이다. 수회는 새엄마의 압박이 심해지자 상실된 대상에 대한 리비도적 집착에서 자아가 빠져나오지 못한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진 것이다.

수회는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이 부족해지고, 부모로부터 위로와 사랑을 받을 수 없다고 느껴지자 친구나 가족, 심지어 애완동물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고 잠만 잔다. 한 마디로 에너지가 고갈된 것이다. 제임스 M 머피는 에너지의 고갈을 일컬어 “당신은 아무것도 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어서 자신이 죽든 살든 별로 상관하고 싶지 않은 것”[18]이라고 하였다. 수회는 우울과 무망감이 극도로 높아진 상태로 볼 수 있다. 이경진과 조성호에 따르면,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청소년들은 보통의 청소년들에 비해 우울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고 정신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수동적인 삶의 자세를 갖고 있으며 생활스트레스에 취약하다고 하였다. 또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자아가 연약하며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수용을 잘하지 못하며 부모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고 보았다 [19].

사람들은 역경에 처하게 되면 낙관적 기대(optimism) 심리와 무망기대(hopelessness)의 성향이 공존하는데, 성공이 기대된다면 확신을 가지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비관적 기대가 지배적이라면 노력을 철회하고 포기한다[20]. 수회는 애완동물과 함께 살고자 하는 욕망이 좌절되자 실어증보다 더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린다. 수회는 성적 저하로 인해 새엄마의 압박이 심해지자 사랑하는 대상을 잃어버린 아픈 기억이 회귀하면서 더 이상 사랑의 대상을 찾지 않는다. ‘잠자는 숲 속의 공

주처럼’ 어떤 행동도 금하는 것이다. 이는 어떠한 목적이나 관심을 가질 수 없는 마음의 상태로,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충동적 자살로 이어진다.

수회는 왜 죽었을까? 충동적 자살 “충동적인 자살이래! 개가 키우던 애완동물들을 개 아빠 버렸대. 그래서 충격을 받고 울고불고 야단이 났었나 보더라. 계집애가 아빠한테 막 달려들었다. 그래서 개네 아빠가 화가 나서 때렸나 봐. 그 양반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 딸을 때렸겠니? 끔찍하게도 아끼던 딸인데. 아이고, 숙희 그년이 너무 극성맞았어. 얼마 전부터 다짐을 하더라고 수회를 정신 차리게 하려면 그 동물들을 다 치워 버려야 한다고 그래야 정신력도 강해지고 공부도 한다고[21].

청소년기의 자살은 충동성이 강하게 작용한다.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수회의 죽음을 두고 성민의 어머니는 충동적 자살로 단정하지만, 수회는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울은 상실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이다. 수회가 자신이 키우던 애완동물을 부모가 버리려 하자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는 자신을 탓하면서 자살을 택한 것은 남에게 향한 공격성의 화살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일종의 자기처벌심리로 봐야 한다.

수회는 공부에 대한 압박이 심해질수록 도피처이자 안식처인 아프리카를 소망한다. 그곳은 입시로 인한 스트레스가 없는 곳이자, 친어머니와 수회가 행복했던 퇴행적 공간이다. 수회가 자살하기 전에 성민의 핸드폰에 킬리만자로에 꼭 데려다 달라고 메시지를 남긴 것은 수회의 퇴행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 삶의 욕동이 소진된 수회는 부모에 대한 반항 대신에 자기처벌로 자살을 결심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옥수의 『킬리만자로에서, 안녕』은 한국에 오게 되면서 입시 성적이 오르지 않자 부모님과 갈등을 겪게 된 수회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이야기를 서브플롯에 담은 소설이다. 이 작품의 성과는 한국 사회가 낳은 입시 지옥의 스트레스가 부모를 포함해서 외부로 표출되지 못하고 안으로 쌓였을 때, 부모에 저항하지 못한 소

너들의 자기척별심리가 작동함을 보여주었다는데 있다. 또한 수희가 자살하게 된 근원이 작중인물인 수희의 우울증에 있기보다는 입시 풍토를 강요하는 한국 사회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이를 받아들여 자식의 명문대 입학에 강요하는 부모의 욕망에 있음을 보여주었다는데 이 소설의 의의가 있다.

V. 협상도구와 자살: 『목요일, 사이프러스에서』

박채란의 『목요일, 사이프러스에서』란 청소년소설은 자살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소녀들의 자살 심리가 잘 드러나 있다. 이 작품은 마음의 상처를 가진 아이들이 자신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자살 소동을 벌이는 이야기다. 이 장에서는 자살을 꿈꾸는 십대 소녀들의 보복심리를 밝혀보고자 한다.

태정이는 아빠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자살 소동을 하며, 새롭이는 연애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 자살을 기획한다. 선주는 언니의 자살이 자신 때문이라며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자살이라는 헤프닝을 벌인다. 세 소녀의 자살을 옆에서 막기 위해 하빈은 목요일이 되면 사이프러스에서 이들을 만난다. 이 청소년소설의 주인공들처럼 소녀들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살을 모의할 만큼 충동적인 것이 사실이다. 남영옥은 청소년의 자살이 우울증이나 조현병과 같은 정신병리적 문제보다는 충동성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2].

자살에 대해 생각하는 십대는 자신의 감정과 고통에 대해 말하지 못하고 다만 행동으로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 이들 십대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살 시도가 관심을 끌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는 것이다. 태정이는 선주와 새롭이에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살 자작극을 보이자고 제안한다. 태정이는 경고 없이 일어나는 자살은 없기 때문에 신호나 단서를 남겨야 하고, 이를 서로가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자살 자작극의 목적은 각자 다르며, 이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살 시도를 계획한다.

태정이는 학교에서 인기도 많고 재주도 많은 소녀이다. 그런 태정이에게 불만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아버지를 자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태정이는 초등학교 3학년 무렵에 열여덟 살 생일날에 아빠와 함께 이집트로 낙타 여행을 같이 가자는 약속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혼한 아빠는 태정이와의 약속을 잊고 있었고, 태정이는 이 일로 깊은 상심을 한다. 태정이는 자신의 자작극을 알고 있는 하빈이에게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며 죽고 싶다고 고백한다. 태정이는 부모의 이혼에 따른 아버지의 부정(父情)을 받을 수 없는 처지이다. 그런 그녀가 아버지와의 약속이 깨어지자 자신이 귀중한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아 자살 충동에 빠진 것이다. 이경진·조성호에 의하면, 청소년의 자살 행동에 미치는 가족 환경의 요인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특히 가족 문제 중에서 어머니와 가족관계, 아버지와 자녀관계가 자살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청소년 자살시도자들은 가정 내에서 매우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23].

새롭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대학생인 진석 오빠가 예쁜 자신을 버린 이유가 다른 사람이 생긴 것이라 믿으며 자살을 통해 관계의 회복을 꿈꾼다. 정도연에 따르면, “시기심은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을 남이 가지고 있을 때, 질투는 자신이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 할 때 나타난다[24].”고 하였다. 새롭이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에 반한 자아도취형 소녀이다. 그녀는 자신을 두고 ‘예쁘니까, 반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자신감이 충만해 있다. 새롭이는 자신의 뜻대로 연애 문제가 풀리지 않자 그 원인을 외부인 타자에 두고, 자신을 배반한 진석 오빠에게 강한 분노를 느낀다. 이는 일종의 보복심리가 발동한 것으로, 새롭이는 상처난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자살 자작극을 시도한다. 새롭이는 복수하고 싶지만 자살하고 싶지는 않은 혼동된 심리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자살 소동을 벌이는 것이다. 자살 시도를 이성인 진석 오빠에게 알리고, 이를 통해 예전과 같은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처럼 자살은 분명한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협상의 도구로 활용되기도 한다.

십대의 소녀들은 성인과 달리 자신의 요구가 방해를 받거나 거절되면 쉽게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한다.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손쉽게 자살을 택하는 것이다. 성인의 경우 보통 우울증이나 정신분열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살하지만 청소년의 경우에는 뜻하지 않은 심각한 스트레스나 참기 힘든 어려움을 회피하려는 충동 및 타인을 조정하거나 보복할 마음으로 자살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25]. 태정이는 자살 시도를 보여줌으로써 진석 오빠를 조정하려는 의도가 있다.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살 소동을 벌이기도 한다. 따라서 십대의 소녀들은 자살이라는 것이 가족과 사회 개인에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태정이가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자살 소동을 하고, 새롭이가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자살극을 연출했다면, 선주는 언니 죽음에 대한 죄책감을 감당하기 어려워 자살 시도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제임스 M. 머피가 말했듯이 십대의 소녀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으로 인해 자살을 결심하기도 한다. 심지어 그들은 실제 죽음의 원인이 아닌 경우에도 자살을 선택하기도 한다.

선주는 생각했다. 자신의 인생은 둘로 나뉘어 있다고 언니의 유서를 발견하기 전과 그 후. 선주에게는 그것밖에 없었다. 선민이의 유서를 발견하고 난 뒤, 선주는 껌데기만 남고 알맹이는 어디론가 증발해 버린 것만 같았다. 알맹이가 사라진 선주는 선민이가 되어 살아갔고 있었다[26].

선주의 언니 선민이는 억압적인 엄마를 이길 자신도 없고 그렇다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 꼭두각시처럼 사는 것도 싫어한다. 선주는 캠프에 가기로 한 날 같이 있어 달라고 한 언니의 부탁을 거절한 것이 언니의 자살을 막지 못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제임스 M. 머피는 청소년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을 생각하는 한 가지 경험은 부모의 거부, 특히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거부를 할 때라고 한다. 선주의 엄마가 선주의 미완성 유서를 보았을 때 보인 부적절한 행동은 선민이

와 마찬가지로 선주에게도 가족 성원으로서 귀중한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한마디로 선주는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문제형 의사소통’ 가족에 해당한다[27].

“이걸 나더러 믿으라는 거냐? 성적을 엉망으로 받아 오더니 이제 이상한 짓까지 다 하는구나! 선민이가 자살한 거라고? 그게 나 때문이라고? 어디서 그런 소리를 지껄여? 선민이가 죽어서 힘들다고? 내가 정말 언니를 생각한다던 언니 뉘까지 두 배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왜 몰라? 내가 마음을 다잡지 못하는 걸 왜 언니 핑계를 대, 핑계를 대긴? 그래서 너도 죽겠다고? 너희 두 자매가 아주 내 인생에 먹칠을 하려고 드는구나[28].”

청소년을 둔 부모들은 아이를 야단치면서 “나 좀 그만 괴롭혀.” “저리 꺼져 버려.”와 같은 말을 경솔하게 한다. 인용문에 나왔듯이 선주 엄마가 선주에게 화를 내면서 “너희 두 자매가 아주 내 인생에 먹칠을 하려고 드는구나.”와 같은 말은 십대 소녀들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 특히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자살한 가정에서는 모방 자살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선주는 엄마가 화가 나서 하는 말이지, 정말 말 그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선주의 엄마와 달리 하빈이는 이 소설에서 선주뿐 아니라 세 소녀의 자살을 막아 내고 자살 시도를 치유하는 조력자형(the helper) 인물이다. 하빈이는 이들 세 소녀들의 자살 충동을 직감으로 알고 있으며, 이들의 말을 들어주기 위해 사이프러스에서 목요일마다 만나자고 한다. 한마디로 하빈이는 학교와 가정에서 결핍을 느끼는 소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어 문제를 해결하는 작가의 분신인 것이다.

박채란의 『목요일, 사이프러스에서』는 십대 소녀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자살 충동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이채로운 청소년소설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 소녀들의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보복심리는 성인에서 발견되는 정신병리적 문제보다 사랑의 요구가 거절될 때, 이성간의 관계 실패에 따른 관심을 얻고자 할 때, 부모의 비난에 따른 일시적 충동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충동적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가까운 친구의 조력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이 작품은 잘 보여준다.

VI. 결 론

청소년소설들에 나타난 소녀들의 자살이 의미하는 것은, 성인의 경우처럼 정신병리적 요인보다는 학교나 가정에서의 관계불화에 따른 충동적 특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본고는 2000년대 이후에 발표된 청소년소설을 중심으로 소녀들의 자살심리의 기저에 도피 심리, 자기차별심리, 보복심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작품 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논의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김려령 작가가 쓴 『우아한 거짓말』의 천지는 가까우면서도 멀게만 느껴지는 화연에게서 관계적 공격을 받아 집단 따돌림을 당한다. 천지는 자기를 투명 인간으로 여길 만큼 친구와 선생님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이처럼 학교에서 또래집단이 취하는 관계적 공격과 이로 인한 자살은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작품의 천지처럼 도피심리로든 집단따돌림을 극복할 수 없다. 또래집단의 집단 구성원들은 서열문화를 없애야 하며, 개인은 자살보다는 자아탄력성을 길러 관계적 공격을 극복해야 한다.

이옥수의 『킬리만자로에서, 안녕』은 여로형 소설로, 애착 대상의 상실감에 따른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 수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대학 입시라는 부모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자 수희는 부모에 대한 원망을 안으로 가져와 자기차별인 자살을 실행한 것이다. 소녀들은 입시라는 압박이 극단적으로 심해지면 낙관적 기대(optimism) 심리를 포기하고 무망기대(hopelessness)의 성향이 강해지게 되는데 수희는 부모의 압력이 거세지자 우울증이 재발하고, 애완동물과 함께 살고자 하는 욕망마저 망각한 것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 성민이 부모의 간섭과 압박에 시달림 끝에 킬리만자로에서 깨달은 것은 자기 차별이 아닌 당당한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인식한 생의 본능 그것이었다.

박채란의 『목요일, 사이프러스에서』란 작품은 자

살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세 소녀들의 보복심리가 잘 드러나 있다. 태정의 자살소동에는 이혼한 아빠의 무관심이, 새롭이의 자살 자작극은 질투심이, 선주의 자살 시도에는 언니의 죽음에 따른 죄책감과 엄마와의 불화가 나타난다. 이들 소녀들은 저마다 가정과 학교에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손쉬운 해결책으로 자살을 시도하려고 한다. 그러나 보복심리에 따른 자살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이 소설에서 하빈이가 목요일마다 사이프러스에서 이들 세 소녀들의 자살 시도를 치유하고 도움을 주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소녀들의 자살은 충동적 성향이 매우 강하다 따라서 소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소녀들의 자살 시도를 막을 수 있다. 소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변의 관심이며 무너진 자존감의 회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라는 공간에는 이 작품에서 조력자 하빈이처럼 좋은 친구 관계를 형성하여 친구들의 결핍을 채워주고 소통할 수 있는 매개자들이 보다 많아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http://media.daum.net/news/view/print?ewsId=20140928135009953>
- [2] 오세란, *한국 청소년소설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3] 성영미, *청소년소설에 나타난 성장의 양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4] 성영미, *청소년소설에 나타난 성장의 양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5] 오세란, *한국 청소년소설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6] 박경희, *청소년소설에 나타난 청소년문화 양상 연구*,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7] 레이첼, 시먼스, 정영희 역, *소녀들의 심리학*, 2011.
- [8] 김려령, *우아한 거짓말*, 창비, 2009.
- [9] 구차순, 김동환, “청소년의 또래괴롭힘 피해 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20권, 제8호, pp.225-255, 2013.

- [10] 조남현, *小說原論*, 고려원, 1982.
- [11] 레이첼, 시먼스, *앞의 책*, 2011.
- [12] 리처드 E, 벨슨·주디스 C, 갈라스, 이혜선, 육성필 역, *침대를 위한 자살예방법*, 시그마프레스, 2006.
- [13] 주디스 허먼, *트라우마*, 열린책들, 2012.
- [14] 지그문트, 프로이트, 윤희기, 박찬부 역,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열린책들, 1997.
- [15] 이지연, 김효창, 현명호, “스트레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청소년 자살 생각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10권, 제4호, pp.375-394, 2005.
- [16] 신복기, 이성진, “청소년기 가정폭력, 학교폭력, 우울불안, 자살 간의 관계,” *한국민족문화*, 제44권, 제2호, pp.281-318, 2012.
- [17] 김석, *무의식에로의 초대*, 김영사, 2009.
- [18] 제임스 M, 머피, 이혜선, 육성필 역, *자살을 꿈꾸는 침대*, 시그마프레스, 2006.
- [19] 이경진, 조성호, “청소년 자살 고위험 집단의 심리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제16호, pp.667-685, 2004.
- [20] 김교현, “한국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 *한국심리학회지*, 제10호, pp.55-68, 2004.
- [21] 이옥수, *킬리만자로에서*, 안녕, 시공사, 2008.
- [22] 남영옥,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학연구*, 제20권, 제11호, pp.283-304, 2013.
- [23] 이경진, 조성호, “청소년 자살 고위험 집단의 심리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제16호, pp.667-685, 2004.
- [24] 정도연, *프로이트의 의자*, 웅진지식하우스, 2009.
- [25] 정주연, 박재연, “청소년 자살시도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22권, 제7호, pp.275-305, 2015.
- [26] 박채란, 목요일, *사이프러스에서*, 사계절, 2009.
- [27] 이지연, 김효창, 현명호, “스트레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청소년 자살 생각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10권, 제4호, pp.375-394, 2005.
- [28] 박채란, 목요일, *사이프러스에서*, 사계절, 2009.

저 자 소 개

음 영 철(Yeong-Cheol Eum)

정회원



- 1998년 2월 :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문학석사)
- 2011년 2월 :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문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삼육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 보건, 교육, 문화 콘텐츠